

광주FC, FA 컵 승리·컨디션 조율 나선다

K3리그 강자 포천과 대결

로테이션 통해 내부 경쟁

안산·서울이랜드·부천FC

3연전 강행군 대비도

광주FC가 올 시즌 FA컵 첫 경기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광주는 9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천시민축구단을 상대로 2022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를 통해 광주는 승리와 컨디션 조절을 동시에 노리게 된다.

광주는 2022시즌 개막전에서 신생팀 김포FC에 1-2패를 기록했지만, 2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경기에서는 2-0 승리를 거뒀다.

'우승 후보' 대전을 상대로 매서운 공격은 물론 탄탄한 수비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두 경기 만에 이정호 감독의 데뷔승이 기록됐다.

짜릿한 승리 뒤 광주는 3라운드 휴식팀이 돼 기분 좋은 휴식을 취했다.

광주는 한 주 쉬어간 만큼 이번 FA 컵을 통해 컨디션 조율에 나서고, 로테이션을 통해 내부 경쟁도 펼치게 된다.

광주는 포천전 이후 안산그리너스(12일 원정)-서울이랜드(16일 홈)-부천FC(20일 원정)와의 강행군을 펼치게 된다.

4일 간격으로 리그 일정이 전개되는 만큼 로테이션

을 통해 최상의 전력을 꾸려, 3연전을 치러야 한다.

이번 FA컵 경기는 출전 시간이 적었던 선수와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들에게는 경기력을 끌어올릴 기회다.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 마이키를 비롯해 김진영, 김승우, 정중훈 등 젊은 선수들이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맞으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

이정호 감독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술을 시험해보면서 선수단 운영의 폭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안방에서 만나게 되는 포천은 'K3리그 챔피언십 6회 우승'에 빛나는 저력 있는 팀이다.

지난 시즌에도 K4리그(4부)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K3리그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다. 올 시즌 첫 경기에서는 리그 '강호'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을 상대로 2-0 승리를 기록했다.

또 김태은-이규로(이상 전 서울이랜드), 김한빈(전 충남아산) 등 프로 무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도 포천 유니폼을 입고 있다.

무엇보다 단판 승부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광주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이른 시간 득점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광주만의 리듬대로 경기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좋은 분위기에서 FA컵 일정을 맞은 광주가 로테이션을 통해 포천전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천시민구단을 상대로 FA컵 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광주 선수단이 지난달 27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K리그2 2라운드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포효하라

Always KIA TIGERS

KIA 2022년 캐치프레이즈 확정



변화의 시작점에 선 KIA 타이거즈가 '포효하라'를 외치며 새 시즌을 맞는다.

KIA는 2022년도 캐치프레이즈를 '포효하라 Always KIA TIGERS'로 확정해 7일 발표했다.

새 캐치프레이즈에는 임인년(壬寅年) '호랑이해'를 맞아 KIA 선수와 코칭스태프, 프런트 등 모든 구성원이 명문 구단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언제나 팬과 함께, 흠여지지 않는 하나의 팀워크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Always KIA TIGERS'도 캐치프레이즈에 함께 담았다. 팬 퍼스트

(Fan first)를 내세워 강팀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 달성 의지의 표현이다.

한편 '새 사령관' 김종국 감독을 앞세워 새 시즌을 준비하는 KIA는 8-9일 홈에서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캠프 마지막 실전 테스트를 한다.

이어 12일 창원으로 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일정에 돌입하며, 16경기를 통해 마지막 '육식 가리기'를 진행한다.

그리고 4월 2일 LG 트윈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2022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보트 타고 우크라이나 탈출 야스트렘스카 테니스 리옹 오픈 준우승 "상금 전액 기부"

다야나 야스트렘스카(140위·우크라이나)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리옹 메트로폴리오픈(총상금 23만9477 달러) 단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야스트렘스카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장샤이(64위·중국)에게 1-2(6-3 3-6 4-6)로 역전패했다.

야스트렘스카는 불과 1주일 전까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보트를 타고 루마니아를 거쳐 프랑스로 피난했다.

2000년생인 그는 16세 여동생 이반나를 데리고 프랑스까지 왔으며 부모님과 보트 선착장에서 작별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황에서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야스트렘스카는 예상을 뒤엎고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끝내 마지막 관문은 넘지 못해 준우승했다.

그가 투어 대회 단식 결승에 오른 것은 2020년 1월 애틀랜트 인터내셔널 준우승 이후 2년 2개월 만이었다.

아쉽게 졌지만 야스트렘스카는 이번 대회 준우승 상금 1만4545 유로(약 1900만원)를 우크라이나 지원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야스트렘스카는 "만일 우크라이나 사람이 지금 이 중계를 보고 있다면 '당신들은 정말 강인하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나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울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세계 랭킹 103위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야스트렘스카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개막하는 WTA 투어 BNP 파리바오픈(총상금 836만9455 달러)에 와일드카드를 받아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5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리옹 메트로폴리오픈 단식 준결승전에서 다야나 야스트렘스카(우크라이나)가 승리 후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가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챔피언스 호그 챔피언십 최종 3라운드 경기에서 13번 홀을 버디로 마무리한 뒤 갤러리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 PGA 챔피언스 호그 챔피언십 준우승

5언더파 66타 구센에 4타 뒤져

'탱크' 최경주(52)가 시니어 무대인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챔피언스 호그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경주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쳐 우승자 레티프 구센(남아공)에 4타 뒤진 2위(11언더파 202타)에 올랐다.

이번 시즌 네 번째 대회에 출전한 최경주의 시즌 최고 성적이며 첫 톱10 입상이다.

작년에 PGA투어 챔피언스 20경기에 출전해 우승 한번, 준우승 한번 등 7번이나 톱10에 들었던 최경주는 올해는 미쓰비시 일렉트릭 챔피언십 공동 19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선두에 2타차 공동 5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최경주는 16번 홀까지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 내며 추격했다.

하지만 1번 홀(파4) 이글을 포함해 6번 홀까지 5타를 줄인 끝에 8언더파 63타를 몰아친 구센을 넘어지지 못했다.

시니어 투어 신인 양용은(50)은 2언더파를 쳐 공동 15위(3언더파 210타)에 올랐다.

스티븐 에임스(캐나다)가 9언더파 204타로 3위를 차지했고, 최종 라운드를 선두로 시작했던 에니 엘스(남아공)는 2타를 잃고 7위(6언더파 207타)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이강인 교체 출전 ... 마요르카 4연패 빠져

이강인이 후반 교체 투입된 가운데 소속팀 마요르카는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에서 4연패에 빠졌다.

마요르카는 7일 스페인 비고의 아방가 발라이도스 경기장에서 열린 셀타 비고와의 2021-2022 라리가 27라운드에서 3-4로 졌다.

마요르카(승점 26·16위) 4연패를 포함해 최근 10경기 성적이 2승 8패에 그치는 부진 속에 강등권 시작인 18위 카디스(승점 24)와의 격차가 승점 2

에 불과하다.

양 팀 합해 7골이 터지고 후반 막바지엔 레드카드가 한 장씩 나온 혈투에서 페널티킥으로 기회가 었었다.

이강인은 후반 22분 구보 다케후사 대신 투입돼 추가 시간까지 30분가량을 소화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이강인은 1월 초 바르셀로나와의 19라운드 이후 리그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